



##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6년 8월 8일, [www.oane.ws](http://www.oane.ws)

### 동방경제포럼 진행기간에 세계 최대 해양수족관 블라디보스토크에 개장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에 세계 최고 규모의 해양수족관 개장식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 현재 해양수족관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식 개장 발표는 동방경제포럼 진행기간에 예정되어 있다. <http://oane.ws/2016/08/07/vladivostok-gotovitsya-k-otkrytiyu-krupneyshego-v-mire-okeanariuma.html>

2016년 8월4일, RIA News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와 동방경제포럼서 회동

«포럼의 고위직 참석율이 높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과 귀빈들의 발표와 패널세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에 양자적 요소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가 밝혔다. 공보비서는 포럼에 최소 700명의 취재기자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http://ria.ru/politics/20160804/1473592902.html>

2016년 8월4일, [www.finanz.ru](http://www.finanz.ru)

###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대한민국간 자유무역구역 조성의 초기 평가결과 동방경제포럼서 발표

관련 내용은 러연방 경제개발부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장관이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의 면담 후 발표하였다. «작년에 [대한민국과의 공동연구그룹이 결성되어 2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의는 한국에서 있었으며 가을에 최종 결과보고를 통해 한국측 권고사항을 전달받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울류카예프 장관이 밝혔다. «양측은 박차를 가해 동방경제포럼 이전에 업무를 완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들에게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특정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음을 보고 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울류카예프 장관이 덧붙였다. 장관의 견해에 따르면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대한민국간 자유무역구역 조성에는 1,5~2년이 소요될 것이다. <http://www.finanz.ru/novosti/aktsii/pervye-ocenki-sozdaniya-zst-mezhdu-eaes-i-yuzhnoy-koreey-predstavyat-na-vef-1001339837>

2016년 8월3일, RIA News

###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크레믈린측은 9월 3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이 계획되었음을 밝혔다.

회담에서 정치, 무역경제, 문화인문 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관계 발전의 전망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회담을 마친 후 일련의 양자 간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http://ria.ru/politics/20160803/1473475597.html#ixzz4GNdDFR98>

2016년 8월3일, TASS

### 동방경제포럼서 «극동의 거리» 축제 개최

2016년9월 1~4일간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은 극동연방관구 9개 지역의 화려하고 독특한 특색을 접할 수 있다. 연해주는 연꽃 모양의 전시부스, 축치 자치구는 곰굴과 바다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배들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캄차카 지방은 화산 형태의 전시관을 선보인다. 마가단 주는 금 채굴의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구현한다. 아무르 주 전시관에서는 우주선 안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하바롭스크 주는 놀랄만한 파노라마 비디오월을 준비한다. 사할린 주는 산악스키 시뮬레이터, 사하 공화국 (야쿠티아)는 세계유일한 고고학적 유물인 1만년전의 동굴사자새끼를 전시한다. 축제 특별 손님으로 크림 공화국이 초청되어 전시에 참여한다. <http://tass.ru/novosti-partnerov/3507207>

2016년 8월 2일, [www.minvostokrazvitia.ru](http://www.minvostokrazvitia.ru)

### 동방경제포럼서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및 아세안 국가들 전략발전 공동 플랫폼 논의

러연방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과 고등경제대학 전문가들과의 만남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공동 전략계획이 논의되었다.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및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 수립용 공동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동방경제포럼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별도의 행사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포럼 자체가 이러한 전략 플랫폼 형성, 공동의 미래 논의 및 설계의 원동력을 줄 것입니다.»라고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95](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95)

2016년 8월2일, [www.skr.su](http://www.skr.su)

###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 제 2회 동방경제포럼은 전회 대비 향상된 모습

동방경제포럼 준비 과정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는 각 지역이 준비하는 전시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내용을 밝혔다. 전시관들의 수준은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하며 러연방 행정단위를 잘 대표하고 포럼 방문객들에게 극동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극동의 거리» 행사가 어떤 모습으로 공개될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지역들이 구현이 되면 흥미로울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제 2회 포럼이 전회 포럼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경제포럼이 지역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트루트네프 전권대표가 강조하였다. <http://skr.su/news/261818>

2016년 8월2일, [www.forumvostok.ru](http://www.forumvostok.ru)

### 동방경제포럼서 러시아-독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진행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행사 일정에 러시아-중국, 러시아-대한민국, 러시아-아세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들과 러시아-일본 포럼이 계획되어 있다. 독일 사업계의 제안으로 포럼에서 러시아-독일 원탁세션이 있을 예정이다.

«러연방 정부는 동방으로의 정책 전환은 서방과의 단절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벡터를 발전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내년 제 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여러 서방국가들과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진행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https://forumvostok.ru/na-vostochnom-ekonomicheskom-forume-sostoitsya-biznes-dialog-rossiya-germaniya/>

## 극동 국가정책

2016년 8월 4일, 극동 캐피탈

### 극동 자유항 경영 첫 결과보고 3개월 뒤로 예정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연방 대통령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극동의 가속발전과 자유항 체제 확장과 관련된 러연방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현황이 논의되었다.

2016년 상반기 극동지역 개발 결과를 평가하면서 트루트네프 전권대표는 2016년 1-6월 극동연방관구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05.4%의 산업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유항 체제 확장과 관련해서 트루트네프 전권대표는 첫 결과 평가가 3개월 뒤 계획되었음을 밝혔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롤아웃에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자유항들에게도 비슷한 기간을 지정합니다. 이 기간안에 각 항구들이 충분한 입주기업 수를 확보하고 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부총리가 밝혔다.

[http://dvkapital.ru/regionnow/dfo\\_04.08.2016\\_8573\\_pervye-rezultaty-po-upravleniju-svobodnykh-portov-na-dalнем-vostoke-budut-podvoditsja-cherez-tri-mesjatsa.html](http://dvkapital.ru/regionnow/dfo_04.08.2016_8573_pervye-rezultaty-po-upravleniju-svobodnykh-portov-na-dalнем-vostoke-budut-podvoditsja-cherez-tri-mesjatsa.html)

2016년 8월 3일, [www.skr.su](http://www.skr.su)

###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 내년 극동의 에너지 상황은 변화된 모습일것

«극동의 발전은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 확보, 사람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건 조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부총리가 밝혔다.

«러연방 대통령은 에너지 요금의 평준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안은 준비되어 러연방 정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을 회기에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내년 극동의 에너지 상황은 변화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업 발전과 투자 유치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생겨날 것입니다.»라고 극동개발부 보도국은 트루트네프 전권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http://skr.su/news/261828>

## 극동 경제

2016년 8월 8일, Interfax

### 중국발 크루즈 여객선 최초로 블라디보스톡 입항

연해주 관광국 콘스탄틴 세스타코프 국장은 Chinese Taishan호의 입항은 연해주와 전 극동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중국 크루즈 관광 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시장이기 때문이다.

«Chinese Taishan호에 500명의 승객과 350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라고 연해주 주정부 보도국이 밝혔다.

여객선 소유사인 보하이페리 회사 유장 사장은 중국측이 정기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tourism.interfax.ru/ru/news/articles/35376>

2016년 8월2일, www.forumvostok.ru

### 선도개발구역 농업 프로젝트들 100만톤 생산

러연방 극동개발부 세르게이 카차예프 장관은 극동 안보관련 출장 회의에서 새로운 농업체들은 육류 25만톤, 유제품 6만톤, 사료 24만톤, 식물 50만톤 및 어산물, 육류 통조림, 햄 등의 추가생산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업에 특화된 선도개발구역은 13개중 3개이다: 미하일롭스키 (연해주), 벨로그orsk (아무르주), 유즈나야 (사할린주) <https://forumvostok.ru/selskokozyajstvennye-proekty-v-ramkah-tor-dadut-1-mln-tonn-produktsii/>

2016년 8월2일, Gudok

### 프리모리예-1 교통로 발전의 일환으로 경유화물 운송 테스트

프리모리예-1 교통로의 환형 열차경로 형성 서비스를 동방하역회사의 터미널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쉐이판허-그로데코보 철도 국경통과지점을 지나 항구역인 나훗드카-보스토치나야로 경유 화물 컨테이너 2차레 물량이 운송되었다. 하역회사에 따르면 해당 경로를 활용하면 중국 화주들의 물류를 상당한 수준으로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 북부 지방으로부터 동방하역회사의 터미널을 통한 화물 운반 물류구도는 빠른 속도, 최적화된 기술, 양질의 터미널 서비스로 화주의 수요를 충족합니다. 연해주와 중국의 교통물류 업체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라고 동방하역회사 알렉산드르 두드코 전무이사가 밝혔다. <http://www.gudok.ru/newspaper/?ID=1345596&archive=2016.08.02>

## 극동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6년8월 4일, TASS

### 극동개발기금 자바이칼 지역 농산업 프로젝트에 4억 루블 투자

«2016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자바이칼스키 지역과 극동개발기금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라고 지역정부 내각측이 밝혔다.

프로젝트의 투자를 통해 곡물 및 유채 파종면적을 10배로 늘일수 있다고 자바이칼 지역 투자그룹 Plemzavod Komsomolets 발레리 나겔 사장이 밝혔다. 사장에 의하면 곡물창고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었고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며 농기계 교체가 계획이 되어 있다.

<http://tass.ru/ekonomika/3508747>

2016년 8월 4일, Interfax

### «RusAgro» 연해주 농업프로젝트에 160억 루블 투자

«RusAgro» 는 연해주에 돈사단지, 배합사료공장, 곡물창고를 여러개 건설할 계획이라고 극동개발부 보도국이 세르게이 카차예프 차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투자총액은 158억 루블로 평가된다.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8월 1일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에 곡물저장단지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9월5일에는 첫 3개의 돈사단지 착공이 예정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51114&sec=1679>